# 장기간 구족계 못 받은 스님 구제된다

## 조계종 중앙종회, '특별구족계 특별법' 제정안 가결

**229회 정기회 11월 1일 개원**
**'승려복지법 개정안' 등 다뤄**
**범어사 방장 정여 스님 추대**
**호법부장 보운 스님 임명동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년 이상 구족계를 수지하지 못한 채 수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미 · 사미니 스님들이 구족계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11월 1일 개원한 제229회 정기회에서 총무원장 명의로 발의된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1990년 12월 31일 이전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199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이전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특별구족계 수계산림 대상자에 포함된다. 대상자를 구분한 것은 단일계단 시행 전후로 출가자가 법계법을 다르게 적용받기 때문.

특별구족계 수계산림이 시행되면 1991년 이전 출가자는 수계 이후 중덕 · 정덕 법계까지 자동으로 품서하며, 이후 법계는 승가고시를 거쳐 법계를 품서한다. 이는 기존 출가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법계법에 따르면 1991년 이전 출가자는 종사 이하 법계까지 자동 품수하도록 하고 있다. 1991년 출가자부터는 승가고시를 거쳐 법계를 품서하는데, 특별구족계 대상자는 수계 이후 5년이 지나야 승가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조정했다.

중앙종회는 또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추대의 건'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정여 대종사는 지난 10월 26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구성원 377명 중 23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산중총회에서 방장후보로 추대됐다. 중앙종회는 이어 10월 30일 총무원 호법부장 서리로 임명된 보운 스님에 대한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도 통과시켰다.

보운 스님은 "총무원장 스님을 잘 보필하고 종단 스님들이 전법 · 포교 · 수행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제228회 임시회에서 이월된 중앙종회 의원의 겸직금지 완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과 연동법인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종도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다시 이월했다. 또한 본사주지의 중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종정법 개정안,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집권자가 산중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요구자들이 산중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재차 이월됐다.

11월 2일에는 원명 스님이 조계사 주지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발생한 '대한불교진흥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제정 스님을 선출했다. 지성(직할), 법전(마곡사), 지근 · 성문(동화사), 정일(해인사), 도실 · 상운(범어사), 법운 · 원천(통도사), 도원(금산사), 동명 · 철산 · 재석(선운사) 스님에 대한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법공 · 요명 · 법영 · 성욱 · 지연(직할), 현각(동화사), 도명(해인사) 스님에 대한 '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도 가결했다.

중앙종회는 또 호암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사찰매장문화재관리를위한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불기 2568(2024)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한 뒤 회기를 앞당겨 폐회했다.

정기회 개원일에는 재적의원 80명 중 69명이 참석했으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탄공 · 탄보 · 향록 · 법륜 스님 의원 선서를 했다.

## 中불교협회와 '한 · 중 불교교류' 논의

### 상진 스님, 중국 베이징서 간담회
### 태고종-중국불교 협력방안 모색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방중해 중국불교와 교류 · 협력을 논의하는 광폭 행보를 보였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0월 28일 중국 베이징 소재 중국불교협회를 종단 교역직 스님들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 사서실장 원오 스님, 규정부장 진화 스님, 사회부장 도휘 스님 등 대표단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는 중국불교협회 상임부회장 중싱(宗性) 스님, 후덕핑(胡德平) 국가종교사무국 중앙통전부 교류처장, 푸증(普正) 부비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중국 외교부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태고종은 중국불교협회 상임부회장과 한 · 중 불교 교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상진 스님은 "한국과 중국 불교는 법맥이 형제와 같다. 태고종 종조 태고보우 국사께서 석옥 청공 선사의 법맥을 이어받아 한국에 널리 법을 전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말했다.

중싱 스님은 "상진 스님께서 총무원장 취임 후 중국을 가장 먼저 방문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중국불교협회와 태고종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저장(浙江)성에 있는 석옥청공 선사의 유적지를 함께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상진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대표단은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방중해 중국불교와의 교류를 이어갔다. 앞서 상진 스님은 후난성(湖南省) 장자제(張家界)시 인민 정부가 마련한 '한중 불교 교류 간담회'에 참석해 상호 교류 활성화를 중국 측과 논의하기도 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집행부 업무 인수인계

### 12대 집행부 공로패 수여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10월 31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2층 회의실에서 '제12 · 13대 집행부 인수인계식'을 진행했다.

이날 본각 스님과 광용 스님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2대 집행부가 진행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전국비구니회와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재무회계 사항을 살폈다.

광용 스님은 12대 회장 본각 스님을 비롯해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13대 집행부도 4년 뒤 오늘처럼 좋은 분위기에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인계서 작성 후에는 12대 집행부 스님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가 수여됐다. 본각 스님은 운영위원장 상덕 스님에게 공로패를, 회칙제개정위원장 정운 스님, 총무부장 현진 스님, 사업부장 덕환 스님, 총무국장 설해 스님, 재무국장 덕효 스님, 교육국장 유정 스님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전국비구니회는 11월 14일 오후 2시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큰법당에서 '본각 스님 이임 및 광용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400일을 맞아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올리는 진우 스님.

## 진우 스님 취임 400일…"감동 주는 불교로"

### 11월 1일 조계사서 기념법회
### 원명 스님 주지 취임식 겸해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400일을 맞아 "감동을 주는 불교가 되자"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11월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기념법회에서 교역직 종무원 스님들과 108배를 올리고, 제37대 집행부의 원력을 다졌다. 스님은 108배 이후 짧은 법문을 통해 취임 400일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출가수행자로서의 마음은 소임을 맡기 전후에 차이가 없다"고 운을 뗐다.

진우 스님은 이어 스님과 불자들이 중생구제라는 불교의 존재 이유를 되새기고,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데 진력하자고 당부했다. 스님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부처님법"이라며 "이를 어떻게 잘 전해서 개개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무원 소임자들이 더 조직적으로 전법해야 한다고 강조한 진우 스님은 "그런 의미에서 선명상을 보급해 대중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불자가 되도록 안내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여러분도 염불, 독경, 불공, 기도 모든 게 명상이니 생활에 녹아들도록 노력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은 최근 조계사 주지로 임명된 원명 스님의 취임식도 진행됐다. 원명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기도와 수행으로 부처님 정법을 세우고 교육과 법회로 널리 전해 모든 이들이 신김과 원력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현 조계사 신도회장은 아미타요양병원 기금 1000만원을 후원해 행사 의미를 더했다. 윤호섭 기자

## 각산 스님 "명상으로 내안의 부처 만나길"

### 정각회, 11월 1일 정기법회 봉행
### 매주 화 · 목요일 아침 명상도



"낙관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가십시오. 희망을 잃지 않으면 그게 바로 성불로 가는 길입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정기법회를 실시하고 있는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가 11월 1일 정각선원(본청 B105호)에서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 스님을 법사로 11월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명상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서 각산 스님은 명상의 본질과 수행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법회에는 주호영 정각회장과 이수진 의원, 천우정 국회직원불교신도회장 등 정각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본격적인 명상에 앞서 각산 스님은 수행에 대해 쉽고 명쾌한 법문을 설했다.

"운명은 습관이 만들고, 습관은 바로 마음에서 온다"고 강조한 스님은 "나의 자문자답과 반문을 통해 생각을 돌려 쓰는 것이 위빠사나의 본질"이라며 "내 상태가 현재 어떤지 스스로 묻는 것이 마인드풀니스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보거나, 듣거나, 닿거나, 인식할 때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물음을 통해 '내가 집착했구나' 혹은 '애착했네'를 알게 된다"면서 "그 다음, 화두를 하나 들고 호흡하며 살아간다면 언제든지 내 안의 부처를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문 이후에는 본격적인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돈하고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정각회는 11월부터 매주 화 · 목요일 오전 7시 30분 정각선원(본청 B105호)에서 저스트비 홍대선원 주지 준한 스님을 법사로 아침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또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의원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불교경전 강의도 실시한다. 불교심리학을 주제로 하는 강의에는 상주 도각사 보만 스님이 법사로 나선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전국비구니회 이·취임식 준비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이 · 취임법회

지난 4년간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를 위해 노력하신 제12대 회장 본각스님 이임식과
더불어 앞으로 4년간 참여와 도약, 미래로 나아가는 제13대 회장 광용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불기 2567(2023)년 11월 14일(화) 오후 2시
장소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 큰법당

■ 화환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대신 쌀로 보시하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 쌀보시 안내 : 1구좌 10만원 ■ 쌀보시 계좌 : 국민은행 208601-04-073935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 문의 : 02) 3411-8103 / 010-7588-6450(혜광스님)
■ 오시는 길 :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